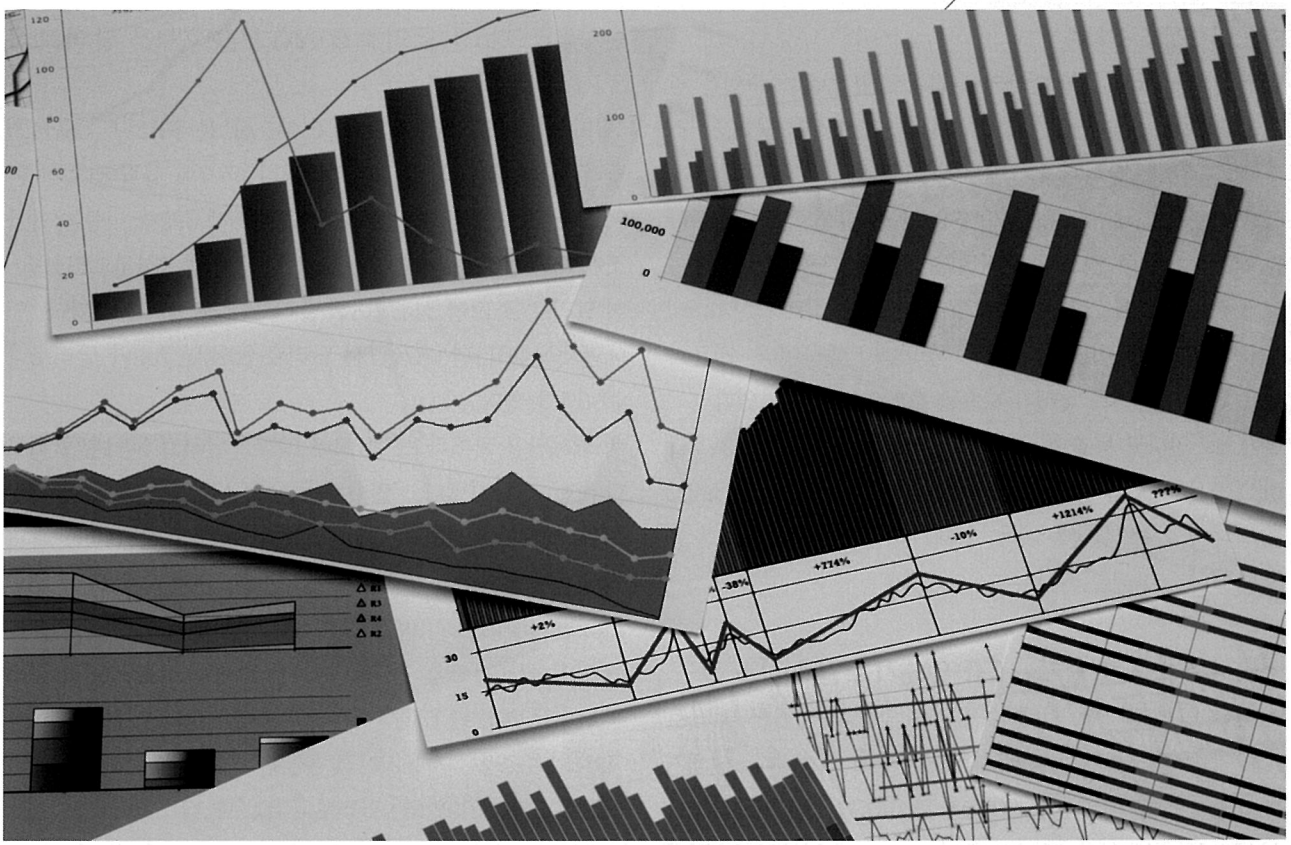


PART3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으로 환율변동 위험성 없앤다! 지난해 일본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504억원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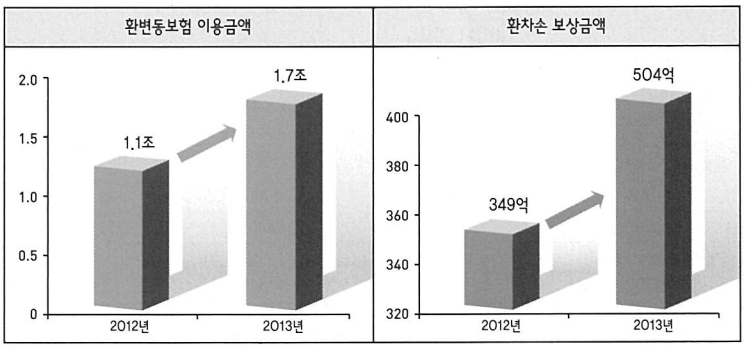
원화강세가 인쇄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하락으로 수출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6년 사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환율이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사이 환율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는 중소 인쇄사의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환변동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실적이 1.7조원으로 전년(1.1조원) 대비 큰 폭(54.5%)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3년 환율하락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환차손 보상금액(504억원)도 지난 2012년 349억원 대비 44.4% 증가해 환변동보험이 환율하락 피해기업에 중요한 환 헤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특히 총 환차손 보상금액 중 38%에 달하는 193억원이 대일본 수출기업들이 가입한 엔화 환변동보험 가입업체에게 지급됐다. 환변동보험 총 가입실적(1조 7천억원) 중 엔화 환변동보험 가입실적은 11.5%(2천억원) 수준이나, 일본의 지속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엔화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엔화 환변동보험 가입업체에 대한 환차손 보상금액이 증가했다.

<표1>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이용 현황 (단위 : 원)



| 환변동보험과 은행선물환 비교 |

(출처: 관세청, 단위: 천 달러, %)

구 분	선물환(Forward)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의 이점
거래한도	타이트한 한도 설정	수출 100% 범위내	중소기업 우대
계약환율	기업 신용도 반영한 선물환율	공사 신용도 반영한 보장환율	중소기업 유리
비용(연간)	선물환율에 반영	0.04% 내외(1년)*	중소기업 저렴
증거금	필요시 요구	없음	담보 불요
최소금액	통상 U$1만	제한 없음	소액 헤지 가능
손익정산	실물인도 원칙	차액정산 원칙	간편한 정산 방식
거래기간	통상 1년 이내	최장 5년	장기거래 헤지 가능

환율변동 불확실성 대비하는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이란 수출대금 외화획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수출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부담을 줄였다.

수출계약 변경, 조기입금 등 외화자금 흐름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자유로운 조기결제가 가능하며, 외화자금의 실제 인도없이 보장환율-결제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차액만 공사와 정산하는 차액정산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때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이익금을 환수하는 환위험 '헤지' 목적의 상품이라는 점이다. 상품에 따라 환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환변동보험은 별도의 금융계약으로, 계약체결 후 실물거래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계약의 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보험대상 통화는 USD, JPY, EUR, CNY로 보험료율은 기본요율 × (1-중소 중견기업 할인율)이다. 중소·중견기업은 10~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또는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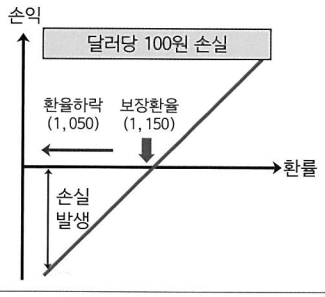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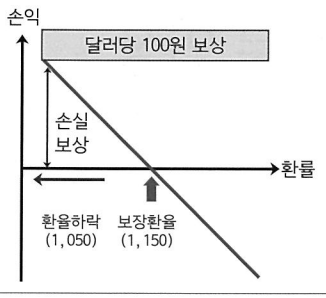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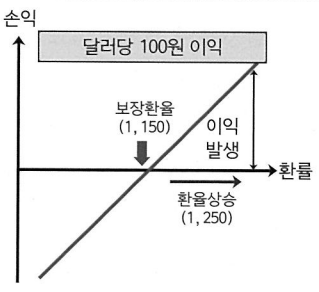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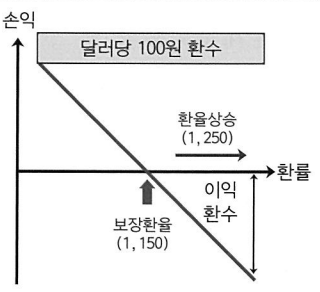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출시 예정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2월 수출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수금이 없고, 환율하락시 전액보상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보다 가입 업종을 넓히고 환율 하락폭에 관계없이 보험가입 금액의 환율 하락분을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의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한해 최고 80원의 환율 하락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주고 있다. 최근 엔저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이 주요 가입 대상이다. 엔화, 달러화, 유로화 등 3개 통화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환변동 보험통한 환율 고정 효과 |

(수출환 변동보험 기준)

환율변동	수출거래(a)	환변동보험 헤지(b)	헤지결과(a+b)
환율하락 (100원↓)			수출거래(a) : -100 헤지거래(b) : +100 헤지결과 : 0 ☞ @1,150으로 환율 고정효과
환율상승 (100원↑)			수출거래(a) : +100 헤지거래(b) : -100 헤지결과 : 0 ☞ @1,150으로 환율 고정효과